

마야문명과 사회주의 쿠바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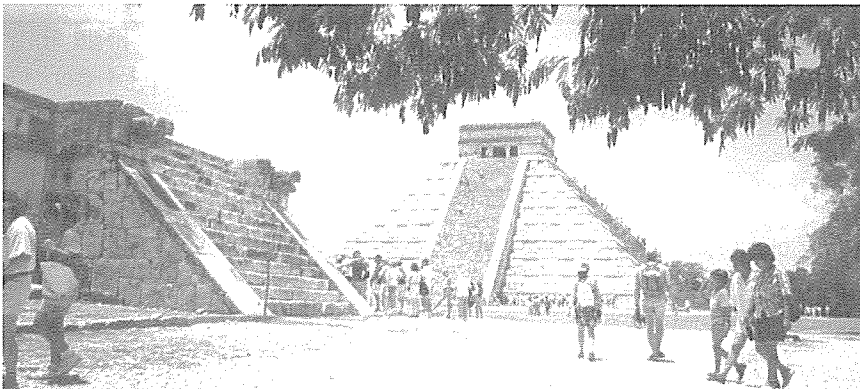
이 승 권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古代 마야문명의 유적지 Chichen Itza, Mexico의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는 데 꼬박 2박 3일이 걸렸다.

멕시코 시티에서 飛行機로 Campeche만을 건너 동쪽 끝단에 위치한 地方都市 MERIDA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곳 광장 중앙에 YUCATAN 최대의 카스티요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전사의 신전, 북쪽으로는 산 사람을 바치는 샘 세노테와 서쪽으로는 축구장 후에고 데펠로타가 자리잡고 있는 MAYA 文明의 발상지 치첸이사에 7월 19일 아침, 고생끝에 도착했다.

치첸이사란 마야어로 “우물가의 이사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쪽에 성스러운 샘이란 의미를 가진 세노테가 밀림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원형의 우물은 직경이 56m, 깊이가 160m로 바위속에 만들어진 천연샘으로서 매년 기우제 때 산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고 한다.

광장의 中央에 위치한 카스티요는 높이 23m의 석조 피라미드 제단으로 4면에 경사가 급한 91단짜리 계단이 있으며 맨 윗단 가운데는 사람이 누운 채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배를 떠받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석조상이 모셔져 있다. 누



Chichen Itza의 유적군 '카스티요'

워 있는 석상 가슴의 움푹 파인 부분에 제물인 사람의 심장을 얹어 놓는데 이 제단에 심장을 제 공할 희생자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땅은 석회질로 구성되어 있어 비가 와도 고이질 않고 모두 스며들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었다. 몽고계의 원주민들은 주산업이 농사일이었기 때문에 農事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하늘에만 의존하는 영농법은 비가 오질 않으면 폐농으로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住民들은 매년 祈雨祭를 지내며 제사 때마다 산 사람을 神에게 바치는 큰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풍습에는 산신령에게나 풍어를 비는 바닷神에게 고을에서 가장 예뻐던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고사가 있지만, 이곳 Mexico에서는 가장 힘이 세고 건장하며 기골이 장대했던 젊은 사나이를 제물로 선정했다고 한다. 선정방법은 축구장에서 동네 청년들이 모여 A·B팀으로 구성된 다음 村長과 住民이 관전하는 가운데 축구 시합을 벌여 우승한 팀이 결정되면 우승한 팀장이 제물로 선정되어 카스티요의 석상 가슴에 축구팀장의 배를 갈라 뛰는 심장을 꺼낸 다음에 석상의 젓상에 올려 놓고 축제를 벌였고, 한편으로는 마을에서 많은 시험과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쳐 수많은 지원자 중 최우수자로 발탁된 가장 멋있는 청년이 제물로 선택되어 “세노테 우물”에 던져지는데 우물 내부가 모두 절벽으로 되어 있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물로 선택되어 죽은 사람은 역대 가문에 공신으로 기록되고 본인은 물론 후손에도 큰 영광으로 남는다고 한다. 요새말로 말하면 뺨(?)을 써도 안되는, 소위 우리 花郎道의 후예라고나 할까.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거대 피라미드군이 마을마다 들어섰으니 Pyramid를 만드는 노력과 재원은 얼마이며 거대 멕시코의 마을마다

이렇게 많은 靑年들이 매년 죽어 갔으니 그 아까운 죽음이 무릇 얼마이더냐. 눈만 뜨면 가슴 조이는 마을 처녀들, 미쳐죽은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지금도 샘안에서 많은 유골이 발굴된다.

中央 America의 밀림속에서 변영했다는 마야 문명!

Egypt의 古代文明은 왕을 장사지내기 위해 돌무덤을 쌓아 오늘의 피라미드를 구성했는데 MAYA 文明은 생사함을 잡는 殺生文明이었다고 하니 돌아보는 유적마다 섬뜩한 생각이 들곤 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속의 王이 누워 있었던 자리까지 들어가 보았는데 시신에 대한 존엄성에 머리가 숙연해지던 느낌과는 많은 대조를 이룬다.

유카탄주의 首都 Merida는 人口 50萬의 都市로 유카탄반도의 政治, 經濟의 中心地이며 Mexico에서 가장 規模가 큰 遺蹟群의 Dali Ciudad Blanca(하얀 도시)이다. 열대의 태양이 작열하는 하얀 벽의 建物들, 住民들의 하얀 복장, 그리고 도시의 청결함이 하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 이 하얀 도시는 16세기 중엽 Spain의 정복자 F. Montehoe에 의해서 세워졌으나 그의 정복은 중앙고원 아즈테카族의 정복에 비해 매우 힘든 것이었다.

유카탄 반도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즈테카족과 오래전부터 대적해 왔던 마야族이었다. 그들은 아즈테카족과는 전혀 다른 社會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정복을 어렵게 했다고 한다. 아즈테카는 그 強大한 힘으로 전부족을 통일한 中央集權의 단일 Pyramid型 정점만 굴복시키면 정복의 8할은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비해 마야사회는 정글속에 분산된 수많은 部族의 집합으로서 각각 다른 지배형태를 갖고 있었다. 하나의 부족을 정복해도 또 다른 부족을 정복해야 했다.

Ucatan의 Jungle을 이용한 MAYA의 게릴라 戰法은 몬테호를 괴롭혔다. 결국 정복되긴 했지만 유카탄 사람들은 Spain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대항하였으며, 멀리는 아즈테카족과 맞겨루었던 “마야의 후예”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MEXICO인이라 하지 않고 Yucateco(유카탄人)라 한다. 이것은 멕시코라는 이름 자체가 아즈테카의 別名 “메시카” 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오늘의 Mexican들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소칼로 지역에 대부호들이 몰려 있는가 하면, 근교 村落에는 거지생활 수준의 원주민들이 모여 있어 삶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숙소 Hyatt Merida Hotel 앞에는 현대교통과 대조를 이루는 관광마차가 즐비하게 서있다. 1인 요금 2천 페소로 黃金馬車를 타고 Socallo를 포함한 Main Street를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소칼로 中心 거리에 아름다운 월계수가 무성한 주위에는 Restaurant, Cafeteria, 영화관, 서점, 선물코너가 즐비하게 서있고 16세기에 建築한 시청사와 주청사에 이어 Yucatan 반도 最大의 寺院 Catedral(1599년 完工)이 우뚝 솟아 있으며 그 中央 계단 오른쪽에 유명하다는 ‘화상을 당한 그리스도상’이 위치하고 있다.

Yucatan의 정복자 Spain의 F. Montehoga 유카탄 전지역에서 굶어모아 富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호화주택은 1549년에 지었다는데 너무나도 고급스런 저택의 모습을 450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세에 자랑하고 있었다.

세페다 公園 옆에는 1618년에 建築한 예수교회와 명문 유카탄 大學이 있고 얼마 더 가니 두 방향에서 中世의 아치형 회랑으로 둘러싼 아름다운 산타루시아 교회가 古代 建築美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몬테호 거리에는 프랑스식의 저택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칸톤공전을 비롯하

여 대부호들의 전성기를 보여주는데 대체적으로 이곳 건물들이 300년~5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그 당시의 設計技法이나 뛰어난 建築術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20년만 지나도 건물의 수명이 다 되었다고 마구 때려 부수는 우리네 재건축 양상과 비교하면 하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Merida에서 Chichen Itza로 가는 길 양 옆에는 선인장 밭이 많았다. 가시잎이 커다란 선인장의 이름이 애니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절찬리에 영화로 선풍을 일으켰던 「애니깁」도 이곳에서 현지 촬영을 한 作品이란다. 애니깁 가공 工場에 가 보니 선인장 잎이 콘베어 벨트를 타고 1차 공정을 거치면서 초록색 섬유질은 물로 빠지고 하얀 실로 분리된다. 이것은 다시 2차 공정을 거쳐 건조된 실타래로 분류된 후 마니라 로프로 가공되는 단순공정인데 무척이나 단단한 Rope로 즉시 생산된다. 인근에 原住民村을 訪問했는데 야자줄기와 잎으로 삼각형의 지붕을 만든 그 안은 흙바닥 그대로이고 망사를 양쪽끝에 걸고 그 속에 엮혀서 자는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인심은 좋아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치첸이사에서 CANCUN까지는 버스로 2시간여 걸렸다. 마치 뱀처럼 긴 모양으로(폭 2~300m, 길이 6km의 반도) 양 옆에 바다를 끼고 길게 뻗어내린 칸쿤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손꼽는 代表的인 리조트 都市란다.

순백의 모래사장과 에메랄드 빛의 푸른 바다, 잔잔한 물결 위에 눈이 시리도록 부시는 푸르른 하늘, 일년내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후와 다이내믹한 수상스포츠, 줄줄이 서있는 고급호텔과 콘도들. 美國과 英國 사람들이 주로 設計했다는 이들 건물들은 특수하고 세련된 모습을 제 각각 자랑하고 있어 마치 建築作品 展示會를 보는 듯

한 착각에 빠질 지경이다.

한국의 콘도미니엄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모형을 따고 심지어는 설계도서의 일부를 입수해서 지었다고 한다. 동일한 모양의 건물은 허가 당초부터 承認을 해주지 않고 심사도 매우 엄격해서 결작품이 나올 수 밖에 없더니 성냥갑 모양만 짝어내는 우리 건축양식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야자수가 드리워진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남선녀들이 해수욕과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은 지극히 평화스럽기만 하다.

아무튼 지역만리 코리아에서 와 세계의 천국 카리브해에서 파도를 가르며 國際美人들 틈에 끼어 즐기는 수영은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다.

7월 24일 Mexico City에 도착하여 삼문화광장, 파달루페 성당, 테오티와칸 유적지, 멕시코 대학, 소칼로 광장, 국립인류학 박물관 등을 돌아 보았다.

멕시코는 B.C 2000년경부터 농경사회가 형성되었고 B.C 1200년경에 성립된 올메카 문화를 비롯하여 테오티와칸 문명, 마야 문명, 툴레카 왕국, 아즈테카 제국 등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고, 1521년 스페인의 침입으로 식민지화 되었다가 1810년에 독립한 국가이다. Spain과 Indian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대부분으로서 인구 7,852만명에 국토는 197만km²이다.

Spain語가 공통어이며 지형이 다양한 만큼 기후도 다양하다. 북부는 건조하고 중부는 고지대로 선선하며, 남부는 열대로 고온다습하다. 수도 Mexico City는 인구 2천만을 헤아리는 중남미 제일의 대도시로서 정식 명칭은 워싱턴D.C.처럼 Mexico D.F.이다.

삼문화 광장은 이태리의 폼페이처럼 땅속에 묻혀있던 유적을 발굴한 것이라는데 지금도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유적들이 곳곳에 묻혀 있어 지하 미발굴 유적이 엄청나다고 한다.

Guadalupe 성당은 성모의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 1531년 12월 12일은 성모 발현일이라 하여 이때는 국가적인 차원의 미사를 집전한다. 성모의 발현은 전설처럼 전해오는데 원주민에게 성모마리아가 나타나 지금의 성당자리에 건물을 짓도록 요구했다. 원주민은 교주를 찾아가 성모발현을 얘기하고 그 증거로 보자기에 싼 장미를 갖다 주었는데 그 순간 장미는 없어지고 보자기안에 성모상이 새겨져 그 기적을 인정해 이 성당 중앙에 걸어 놓았는데 4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천주의 뜻이라고 믿고 있다.

마야의 고도를 향해 가는 길의 산등성이마다 우리나라 5, 60년대의 달동네가 준비하게 늘어서 있다. 너무 초라하고 조잡한 동네이지만 멕시코 시가 가깝고 살기가 불편함이 없어 오래 살고 있으나 앞으로도 우리같은 재개발 계획은 없다고 한다.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있다는 마야의 옛도시, Teotiwacan은 산중턱 커다란 벌판에 자리잡고 있었다. 정문 중앙에 산더미처럼 우뚝 서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 65m, 248 계단, 밑변의 1변이 225m의 거대한 Pyramid이다. 테오티와칸 중에서 최대의 건축물이고 세계에서 3번째의 크기, 정문 왼쪽 멀리 자리한 '달의



멕시코 Teotiwacan의 '달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높이 46m×밀변 150m×120m의 돌구조물로 350년경에 축조되었다는데 현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설물들이다. 그 옆의 케살파팔로를 신전은 하과레스의 궁전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데 반지하처럼 된 3개의 방이 있다. 각 방에는 “소라 고등을 부는 깃털이 달린 하과레스의 그림”, “케살의 그림”, “비의 신 트랄로크의 그림” 등 지극히 선명한 색이 남아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색상이 변하지 않아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멕시코 전지역의 중심지이자 행정 타운인 소칼로 광장은 헌법광장으로서 이곳에 있는 Moctesuma II세의 궁전을 부수고 Cordes가 다시 지어 궁전으로 쓰다가 1692년 반란군에 의해 파괴된 후 다시 지었다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증거품인 국립궁전에는 大統領의 집무실이 있고 Mexico 근대화의 영웅인 Benito fuales의 기념실도 있다. 궁전내부의 정원을 뺀 둘러 2층까지 벽면에 그려진 Diegribera의 대벽화는 아르테카 시대부터 멕시코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그려져 있어 대통령궁을 돌아보는 이들에게 감명을 받게 하고 있다.

대통령궁 오른쪽은 시청건물이, 건너편에는 국립전당포가, 그리고 왼쪽에는 아르테카 시절 살아 있는 人神 공양을 받아 그 해골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짓기 시작해 240년만에 완공을 하였다. 大聖堂 카테드랄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서 있다. 내부시설 또한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건물침하로 내부는 온통 들비게로 째 들어차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당초 1m 까지 기울었던 것을 수리를 통해 70cm까지 복원중이라 건물 중앙에 추를 달아 계속하고 있었다.

이곳은 당초 도시개발 때 호수를 매워 도시를 조성하였던 것이 몇백년이 지나면서 차츰 침하현

상이 나타나 대다수 많은 건물들이 약간씩은 기울어져 있다. 전반적인 현상이고 보니 몇십센티미터 기울 것은 면적이 되어 있어 신경조차 쓰지 않는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사현장 부근에서 1cm만 기울어도 집을 새로 지어내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아마 이곳에 우리 협회 지부를 설치하면 평생 진단업무를 계속해도 부족하리라.

Mexico city는 고원도시로 해발 2,240m에 위치하고 있어 산소가 부족해 연료가 잘 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매연이 가득차 있다고 한다. 그 래서인지 3일간 체류중 목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한 것이 이곳에서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곳 사람들이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버스는 지정된 정류소가 없어서 손을 들면 아무 데나 서고, 전차는 돈없는 빈민들의 전유물이다. 택시는 복스바겐 소형차가 대부분이며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멕시코 국립대학(UNAM)은 학생 30만명에 교수가 2만명으로 세계 제1의 대학이며 학비는 연간 60원(?)이란다.

멕시코인들이 자랑하는 국립인류학 박물관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마야 유적인 우즈말의 사원이 미지를 기초로 하고 있다. 총 22실로 되어 있는 박물관을 세밀하게 관람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열품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유골들과 아즈테카 켈린더이다. 거대한 원형돌판의 중심부에는 햇바닥을 뚫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4개의 시대를 지내와 태어나고 소멸했다는 태양 4개 등 복잡한 문양들이 여러 겹 그려져 있다. 멕시코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섯번째 태양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혀를 내밀고 있으며 이 시대의 종말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태양의 달력은 하루, 한달, 1년뿐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점치고 있는 신비한 우주관을 상

정하고 있다고 한다.

MEXICANA 항공으로 CUBA의 수도 Habana 공항에 도착하니 건물 외벽에 쿠바 국기와 함께 'CUBA WELCOME'이라는 영문자가 방문객을 반겨준다. 공항밖에는 Demo 군중을 방불케 하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고 그들은 상의를 벌거벗은 채 비행장 울타리 위까지 올라가 웅성거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비행장이나 기차 정거장에서 가족이 여행할 때 그들을 기다리는 촌스런 모습들이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회주의 쿠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측은한 생각이 먼저 앞선다.

쿠바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섬나라로서 건기의 일정한 기온과 높지 않은 습도, 공해없는 대기 등으로 환자유양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관절통이나 각종 성인병 환자가 이곳에 와 6개월만 요양하면 거의 완치된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쿠바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의료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과 야맹증, 눈의 치료에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인구 1,070만명인 쿠바는 1492년부터 4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1901년부터 1959년까지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그해 카스트로와

Argentina의 혁명가 체게바라에 의해 집권하고 전형적인 단일내각의 사회주의로 자리를 잡고 카스트로와 그의 친인척에 의해 주요권력을 독점하였다.

Spain 시대에 왕성했던 쿠바는 카스트로의 주권과 함께 몰락하기 시작해 지금은 빈부의 차가 엄청나고 거지가 들끓는 배급제도의 국가로 타락해 GNP 2,800\$의 미개국가로 전락한 세계유일의 북한과 쌍벽을 이루는 공산국가이다.

미꾸라지 모형의 긴 섬나라 쿠바는 장방의 길이가 835km에 달하며 전체 면적은 11만 9,220km²로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80%가 카톨릭이며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5°~30°C로 매우 덥다.

쿠바 혁명사를 보면 카스트로 자신만은 혼자만으로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인 Chegebala와 함께 혁명을 일으켜 성공함으로써 有明한 일등공신이 된다. 혁명성공 후 카스트로가 주동자였던 체게바라에게 국무총리급의 벼슬을 주었으나 체게바라는 벼슬을 마다하고 자신은 혁명가로서 제 3국에 가서 다시 혁명을 일으키겠다면서 아프리카와 남미 등 열세한 국가들을 헤매며 혁명을 돕다가 사살된 후 지금까지 Cuba에서는 카스트로 대통령보다 더 유명인이 되어 쿠



쿠바의 수도 Habana의 시가지 전경



바의 화폐는 물론, 시가지 주요장소나 국가기관 건물에 그의 모형과 사진, 동상 등이 건립되어 있다.

Spain의 해적단 두목 Columbus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곳이기도 한 이곳은 Spain이 정권 장악 후 원주민 모두를 잔인하게 죽여버려 씨를 말렸기 때문에 지금은 원주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회주의 특성상 모든 것이 배급제이고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40년의 카스트로 정권하에서 국민들은 가급적 놀고 자기집을 수리하지 않아 마치 시가지는 전쟁 후를 방불케 하는 거지와 폐허의 도시 바로 그것이다. 외형적으로는 국가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배급량은 극히 적어 한달에 손가락만한 치약 하나, 계란 10개(그것도 노인용), 비누 한개 정도라니 죽지 못해 사는 형편인 것이다.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봤자 배급품외에 용돈으로 10US\$를 주고 대학교수 정도 되어야 30\$를 준다고 하니 아무리 물가가 싸다 하더라도 월 1~2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풍기 하나도 없어 옷을 훌훌 벗은 채 집 밖에 나와 있다. 어린이들은 외국인만 지나가면 손을 내밀고 돈을 요구한다. 일부 상인들은 우표나 옛날화폐 등을 가지고 판매하는데 부르는 값이 제멋대로이고 사는 사람도 제멋대로 깎아 1/5 정도에 사고 판다. 선조나 부모를 잘못 만난 자식들은 엄격히 신분이 구분되어 있어 아무리 똑똑해도 학교에 선발자격조차 없고 관공서의 취업이나 행정부서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은 국내 취업이나 연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oat people이 되어 미국으로 목숨건 탈출을 실행하다가 대서양 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비극의 연출을 계속하게 된다.

Melia Cohiba Hotel은 대서양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외부의 건축 규모도 25층에 Glass 빌딩으로 외관이 돋보였지만 내부는 더욱 호화판 시설규모였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이곳처럼 좋은 시설은 없었던 것 같다. 우선 방의 크기가 일반 hotel의 2배 이상, 응접셋트가 별도로 배치되고 화장실도 비데를 포함하여 수중안마시설까지 넓은 면적에 초현대식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쿠바를 무시하고 들어온 외국인을 놀라게 한다. 식당또한 생음악과 함께 70여종의 요리가 진열되어 무척 고급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카스트로가 최근 외화획득을 위하여 과감하게 개방했는데 건물주는 스페인 소유이고 내국인은 일체 출입조차도 안된다고 한다. 호텔 입구는 물론 엘리베이터 앞까지 경비를 삼엄하게 서고 있다. 우리는 보통 부패식을 할때 먹을 분량만 가지고 와서 남기지 않고 먹어야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는데 이곳은 종업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고 와서 남겨주면 그들의 식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고기 등을 많이 가져와 남겨달라는 가이드의 귀뜸을 듣고 한편 놀라기도 했다. 호화판 호텔과 못사는 종업원의 차이는 엄청나다. 룸에서 쓰고 남은 비누, 치약, 화장품 등 일회용품들도 호텔방을 나설 때 모두 갖다 달라길래 가이드에게 넘겨 주었다. 시민들에겐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귀한 선물이라고 했다.

밤이 어두어지자 호텔 앞에는 젊은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금방 성시를 이룬다. 주로 10대의 해맑은 흑백의 쿠바 아가씨들이다. 다른 나라 호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인데 생활이 어려워 몸을 파는 시민들이라고 했다. 40US\$ 수입 중 20%는 정부에 납입하는데 그래도 이들은 미모의 덕을 톡톡히 누리는 복받은 사람들과 같다.

시가지 주택이나 상가 건물들은 얼마나 폐인 트칠을 하지 않았으면 외형이 모두 증성화가 진행되어 녹슨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 덩이가 떨어진 물골을 하고 있어도 정부에서 칠해 주기만 기다린다. 그런 건물 가운데 美國領事館과 北韓代事館 건물만은 현대식 건물로 빛이 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Cuba의 Hawaii라 불리는 휴양지 Varadero로 가는 도중에 헤밍웨이 기념관에 잠시 들렀다. 넓은 숲속에 자리한 하얀색 1층 저택, 이어 붙여 지은 3층 부인용 건물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색 벽돌건물안에는 헤밍웨이가 평소에 사용하던 유품과 그가 사냥으로 잡은 노루와 호랑이, 사슴, 꿩 등이 박제로 그대로 전시되고 그가 즐겨 읽던 많은 책들이 건넌방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방마다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사진 촬영을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 한참 아래 정원에는 그가 평소에 아끼던 요트가 정박해 있고, 가장 사랑했다는 고양이의 무덤과 비석이 사진과 함께 뜰안에 있다.

헤밍웨이는 젊은 날을 주로 이 집에 기거하면서 작품활동을 했고 4km 떨어진 해변 코히마루(Coijimar)에서 배를 정박해 놓고 여행과 낚시,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코히마루 해안가에 그의 흉상이 있으며 영화 '노인과 바다'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휴양지 Varadero는 Habana 동북쪽 140km에 위치하는 지령이 모양의 반도로서 유럽과 캐나다 사람들이 주로 찾는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해변이다. 폭 300m, 길이 8,000m의 쿠바 제1의 해변 휴양지로 은모래와 맑고 깨끗한 하늘과 바닷물이 함께 어우러져 파라다이스를 연출하는 곳이다. Meria V. Hotel은 15층 R.C 건물로 건물내부 중앙에 원형공간을 과감하게 설

치하였다. 50m 천장은 유리로 마감하여 갈매기의 나는 모습을 건물 중앙홀에 앉아서 한가로이 볼 수 있다. 내부 원형 베란다에는 줄기화초를 커튼처럼 드리워 식물원의 신선함을 맛보게 설계된 건물이다.

저녁식사 때는 넓고 화려한 식당에서 Lobster 요리에 원주민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베사메무쵸'를 열창할 때 외국 손님들은 모두 아낌없는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날 버스로 3시간을 달려 원주민 마을인 '타이노'에 도착했다. 과야마 악어농장 앞을 지나 배를 타고 30여분 정글을 헤치고 나가니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호수 저편에 아름다운 타이노 마을이 맑은 호수와 목화솜같은 몽개구름 사이로 야자수와 함께 그림처럼 펼쳐진다. 마침 건축중인 원주민 마을의 증축현장을 볼 수 있었다. 재료는 모두가 야자수로 석까래대신에 줄기, 기와대신에 잎사귀로 지붕을 덮고 있는데 무척이나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시공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쪽 바닥은 흙 그대로 그저 비와 햇빛만 가리는 그러한 단순공정의 초가집 모양이다. 그러나 주변에 잘 정리정돈된 조경수와 질게 깔린 잔디밭은 자연을 최대한으로 만끽하는 무공해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다시 배를 타고 밀



쿠바의 원주민 마을

림수로를 따라 타이노로 귀환하는 배 위에는 프랑스 여인들과 호주의 남성들, 그리고 실내에는 일본인과 약간의 인도인들이 승선했는데 언어와 인종은 달라도 생각과 마음은 똑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성인 것 같다. 악어농장 옆의 전통 쿠바식당에서 처음 먹어보는 악어요리는 생각보다 맛있는 일품요리였다.

Habana로 돌아가는 길은 일반국도와 고속도로가 교차된다. 우리네의 고속도로처럼 도로시설이 좋지 않지만 군데군데 도로상에 주민들이 늘어서 No.1의 사인을 보내며 태워줄 것을 요청한다. 자동차라 해야 독일제 낡은 복스바겐이 주종을 이루고 30~50년이 지난 고철차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Tico 자동차는 정말 세련되고 멋진 새차로 강력하게 부각될 정도이다. 그와 함께 인력거형 삼발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달리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횡단한다.

왕복 6차선의 고속도로는 차선 마킹도 흐려 보이지 않거나 일반 국도는 마킹이 없는 곳도 많

다. 도로유지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다.

Habana 시내 중심에 위치한 혁명광장은 일명 레닌광장이라고 부른다. 쿠바에서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서 독립기념비와 넓은 광장을 마주하고 있는 쿠바 행정부 건물에 쿠바국기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벽면에는 독립혁명이 체게바라의 얼굴형상이 한줄의 굵고 검은 그림으로 새겨져 있다. 관광객의 진로는 쿠바 국내 어디나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으나 주민들은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경계선 길목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행동에도 큰 제한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저녁에는 Cuba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민속공연을 보기 위해 Tropicana Caribe Show를 보러 갔다.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공연중에 비가 오면 입장료 전액을 반환해 준다고 한다. 공연시간은 2시간, 입장료는 A~E석까지 평균 60US\$이며 이 속에는 음료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공산권이라지만 카리브쇼만은 특설무대에 대규모 시설과 함께 호화로운 장을 여는 커다란 Show임에는 틀림없다. 등장하는 Dancer들도 70여명, 의상도 지극히 다양하고 아름답다. 여기서는 이 쇼를 세계 3대 쇼 중의 하나라고 했다. 美國의 라스베이가스쇼, 프랑스의 리도쇼, 파타아의 알카자쇼를 3대 쇼라 하는데 4번째 Show는 영국의 레이몬드쇼, 쿠바의 트로피카나 카리브쇼, 한국의 워커힐쇼, 어느 것이 진짜 네번제인지는 모를 일이다.

아무튼 긴 여로, 멀리 이국땅의 34℃의 무더운 여름밤에 카스트로가 제공해 주는 즐겁고 화려한 카리브 쇼를 보면서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쿠바의 레닌광장의 행정부 건물에 걸린 쿠바국기와 혁명가 체게바라의 벽화 앞에 선 필자